‘저출산 극복’ 힘 보탠 해운정사

10년간 세 자녀 가정 장학금… 10억 원 소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한국사회. 사찰서 이 같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나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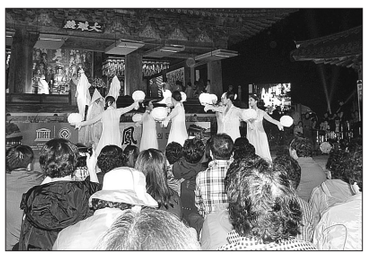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9월 10일 원통보전에서 ‘제5회 세 자녀 가정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대상 가정에는 10년간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50만원씩 전달되며, 총 10억 원이 소요된다. 해운정사는 2016년 40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30가정을 추가했으며,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40가정을 더해 목표했던 100가구를 채웠다.

진제 스님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효를 실천하며 신의와 사랑을 갖춘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구 감소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조상들이 이뤄놓은 5천년 민족 문화가 무너진다”며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꽃 피우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계문화유산 보전, 모두의 몫”

안동 봉정사, 세계유산 등재 고불식 · 음악회



안동 봉정사는 9월 1일 경내에서 봉정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불식과 축하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제16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50여 명과 전우헌 경상북도부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정훈선 안동시의장, 이재업 안동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한 뒤 “오늘 자리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봉정사 가치를 되짚어보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제 봉정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하는 모두의 것이 됐다. 우리 모두 주인의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우헌 부지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봉정사는 677년 능인대사가 창건한 이래 1400년 가까이 법등을 밝힌 유서 깊은 고찰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쾌거와 함께 관광자원 활성화로 경북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룸비니 아이들 학업성취 기원”

빛고을나눔나무, 자전거 지원 후원금 모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9월 8일 세심정사 잔디마당에서 ‘룸비니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행복자전거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월인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진 후원행사는 연잎밥과 가을 꽃차로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서 모연된 기금은 네팔 룸비니에서 하루 2~4시간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100대 구입에 사용된다.

기념식에서 상임이사 보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룸비니에서 많은 시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만났다. 대부분 저소득 가정으로 자전거를 집안의 큰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화사 울려 퍼진 ‘부루나 하모니’

첫 무대 준비하는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구 동화사에 어린이의 맑은 음성이 가득 찼다.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이 새롭게 창단된 지 4개월 만에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 명의 단원들은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캠프까지 열고 맹훈련 중이다. 어린이 단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인 자모들까지 참가해 동화사에는 포교 새바람이 불고 있다. 9월 9일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 캠프가 열린 현장을 방문했다.

캠프 장소인 동화사 템플스테이관에서는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손을 이리저리 돌리며 현란한 율동을 선보였다. 무대에서 보여줄 춤이다. 이내 맑은 음성으로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9월 8~9일 동안 춤과 노래만 계속 연습한 아이들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다.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이지윤 지휘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난 아이들이다. 밤에도 친구랑 이야기꽃을 피워 잠도 못 잤을 텐데 정말 힘이 넘친다”며 웃었다.

참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즐겁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안서현(지묘초3) 학생은 “평소 음악과 춤을 좋아해 참여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 신난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서 좋다”고 말했다.

조민솔(지묘초3) 학생은 “친구들과 같이 자고 노는 것 같았다. 연습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행복하다”고 답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효광)는 오는 10월 6~9일 4일간 축제 ‘승시’를 개최한다. 승시는 대구지역 불교 대표 문화축제로 매년 동화사 일대에서 옛 장터를 재현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구성한다.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은 첫날 오후 4시 설

올 5월 창단 30여명 활동 중
뛰어난 실력 향상 입소문 타
10월 6일 어린이 산사음악회
“종교색보다 어린이 행복 우선”

법전 앞 특설무대에서 ‘어린이 산사음악회’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은 올해 5월 창단됐다. 창단 당시 1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자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금세 30여 명이 모였다. 불교라는 종교색보다는 먼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어린이를 위한 활동무대를 마련한 것이 성공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성악을 전공한 전문 지휘자가 지도해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 흡족하다는 평가도 한몫을 했다. 게다가 지난 1월 동화사는 임회에서 어린이 포교 확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6일 산사음악회에 앞서 무대를 준비하는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 최근 열린 캠프에서 율동 호흡을 맞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단원들이다.

동화사 기획국장 미수 스님은 “어린이를 위해 공간을 열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설명했다.

미수 스님은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 합창단도 실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세계무대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사찰에서 뛰어 놀며 즐겁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포교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창단원 자모들의 반응이다. 자모들은 “아이들이 싫다면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연습 때마다 먼저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돌이키긴 늦었다”며 미소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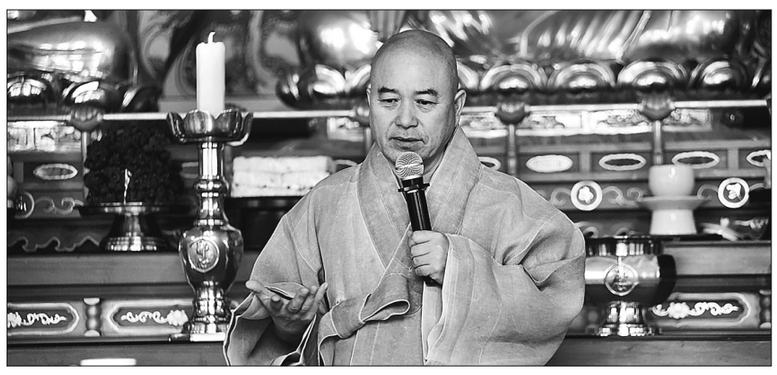
강문자 자모회원은 “연습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차 안에서 그날 배운 ‘꿈꾸지 않으면’이란 곡을 계속 흥얼거렸다. 창작동요를 전문적으로 배울 곳이 없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 느꼈다”고 말했다.

서보경 자모회장은 “처음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 옆에서 지켜보면 좋은 무대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며 “준비 기간이 많이 짧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문제 해결, 명상에서 답을”

광주 증심사, 미산 스님 초청 ‘과학기술시대와 명상’ 특강



광주 증심사가 마련한 명상 특강에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명상 대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시대에 만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9월 12일 대웅전에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을 초청해 ‘과학기술시대 명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연광 스님,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했다.

광주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미산 스님은 명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서양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산 스님은 “최근 서양사회는 명상을 보편화하기 위해 종교적 편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명상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예로 영국의회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비즈니스, 법조계 등에서 심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했다”며 “특히 미국은 각 학교에서 명상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직접 배워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서양문명은 지금껏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성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발전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한국은 더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서양과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들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제는 명상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구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후원한 장휘국 교육감은 “이제 한국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위한 교육보다 생명과 평화, 인격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인성교육이 대중화되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심사에서 운영하는 대원장학회는 9월 8일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을 방문해 지역 아동을 위한 ‘소원우체통 사랑의 선물’ 1000만원을 관내 아동 30명에게 전달했다. 소원우체통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미리 신청 받아 구입해 ‘사랑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